

택시요금 3월 1000원 이상 오른다

〈경기도〉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오는 3월 중순부터 1000원 이상 오를 예정이다.

도는 26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택시 관계자, 전문가들과 택시 기본요금 인상폭 조정 및 의견수렴 등 논의를 진행했다.

도는 이날 요금 인상 기준 관련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전문가들과 택시 관계자들은 입장차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선 1안은 중형 택시 기준 현행 기본요금 2km 3800원, 거리운임 132m당 100원, 시간운임 31초당 100원인 요금을 2km 4800원, 125m당 100원, 30초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인상은 16.86%로, 늘어난 운송 원가를 보전해주는 수준이다.

2안은 기본거리를 1.6km로 줄이고 기본요금은 4800원을,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 시간운임은 30초당 100원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

인상은 19.56%,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 요금 체계와 동일하다.

3안은 2km 기본거리에 기본요금은 5800원, 123m당 100원, 30초당 100원씩 늘어난다. 인상은 32.42%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지만 전문가들은 1000원 인상인 1.2안을, 택시 관계자들은 2000원 인상인 3안을 강력하

도, 택시 관계자·전문가 공청회

'1000원 vs 2000원' 인상 두고

전문가·택시 관계자 '이전' 보여

그간 서울·인천과 동일 체계 유지

서울은 다음 달 1일 1000원 인상

인천시도 동일하게 인상 될 전망

게 주장하는 등 첨예하게 갈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요금 체계는 표준형(수원 등 15개 시), 가형(용인 등 8개 시), 나형(안성 등 7개 시·군) 모두 기본요금만 인상, 거리시간운임 적용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심야 택시 공급 부족에 따른 승차난 해결을 위한 심야 할증요금 기준 체계도 포함됐다.

1안은 현행 0~4시 20% 할증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 30% 할증으로, 할증요금 적용 시간을 1시간 늘리고 요율도 10% 포인트 높이는 방안이다.

2안은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할증요율을 시간대별로 탄력 적용하

는 것이다.

3안은 오후 10시~오전 4시 30%로 할증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요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다.

도는 공청회에서 제시한 3개 안과 각계 의견을 첨부해 27일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다음 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뒤 오는 3~4월쯤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19년 5월 이후 4년 간 택시 기본요금을 동결하면서 택시업계의 열악한 경영 환경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그동안 승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서울·인천시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들과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요금 인상도 서울·인천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2km에서 1.6km로 줄여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키로 했다.

인천시도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연료비 증가 등으로 오는 3월쯤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혜진 기자



경기국제하프마라톤 D-30

동호회 탐방

용인 퓨마스 마라톤클럽

친목과 끈기라면 우리 클럽이 '갭'



용인 퓨마스 마라톤 클럽

사진= 퓨마스 마라톤 클럽 제공

토요일 아침 15km 코스 정기훈련
해외 전지훈련 등 통해 역량 키워
밤부터 동트는 새벽까지 '야간런'
한 달에 한 경기 메달 12개 목표

울트라 마라톤 대회 등에 참가할 계획
이다.

퓨마클은 회장, 부회장, 훈련감독, 기술감독 외에 울트라감독이 별도로 있어 울트라 코스에서의 경험을 두텁게 쌓을 수 있다.

여 회장은 "울트라 코스를 달릴 때 차량이나 자전거를 타고 물을 챙겨주는 등 밤새 달리는 회원과 마음을 함께한다"며 돈독함을 자랑했다.

한계치를 끌어올리는 등 극한의 경험을 통해 더 끈끈한 사이가 되고 있다.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시기에는 '야간런'이라는 자체적인 활동을 진행한다. 밤 10시에 모여 등이 터오는 새벽까지 밤새도록 뛰는 활동이다.

여 회장은 "동 터오는 경치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고 새벽 물안개가 끼는 저수지에 반사된 은하수에는 뛰어들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퓨마클 회원들은 매달 대회나 모임을 동기부여 삼아 더 충실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올해는 매달 한 대회에 참가해 꾸준히 운동하고 메달 12개를 따는 것이 목표다.

여 회장은 "지금처럼 잘 호응해서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며 "새 회원이 들어오더라도 잘 이끌어주고 화합하면서 행복하게 달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유림 기자

배달플랫폼 B2B 서비스, 분쟁 해결기준 '입맛대로'

소비자 피해 우려... 공정 기준 시급

우아한형제들·쿠팡·GS리테일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운영하는 B2B(Business to Business) 서비스 분쟁 보상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사안은 아니지만 보상 정책을 최소화하려는 플랫폼 기업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가맹 또는 계약 관계에 있는 법인과 업주들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B2B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배달의민족이 2018년 시행한 식자재 배달 B2B 소평물 배민상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조정 기준을 기반으로 내규를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의민족 사정으로 식자재를 공급받지 못한 가맹 점주는 배달의민족 내규 보상안에 따라 쿠폰 보상이 이뤄진다. 또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달의민족은 점주와 협의를 통해 보상 수준을 조율한다.

쿠팡이츠빌로 시작돼 현재 쿠팡비즈라는 서비스 네임으로 운영되는 쿠팡 B2B 시스템은 개인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쿠팡과 비슷한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개인 사용자의 보상 정도는 물건 비용 환불 또는 재배송이다.

업주의 발주를 도와 식자재 구입처를 연계해주는 GS리테일의 GS비즈클럽은 자체 보상안을 운영 중이지만, 세부 보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대형 유통사들의 B2B 서비스 보상이 획일화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 기준이 사업자-개인 간 분쟁 기준만 마련돼 있고, 나머지도 법령이 아닌 참고 기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은 분쟁 조정 기준 수립 과정에 대해 "공정위 분쟁 해결 기준이 B2B나 B2C로 세분화 있지 않고 배달의민족이 전자상거

래업으로 구분돼 있어 인터넷 소평물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비슷한 분류를 참고해서 정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라며 "직접 배송임에도 불구하고 택배 배송 분류에 맞는 기준을 세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명확하게 업종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본인 업종에 맞게 합리적으로 내규를 수립할 수 있지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결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사업자와 사업자 간 기준은 관련 법 위반이 없을 때 참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불투명한 보상 정책으로 인해 애꿎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사업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사들에는 몇 만 원도 채 하지 않는 적은 금액이겠지만 소상공인에게 하루 수익이 될 수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재민 기자

YANGJU 양주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 | 시민 중심의 **열린도시**
- | 행복 동행의 **복지도시**
- | 동반 성장의 **경제도시**
- | 아름다운 일상의 **문화도시**
- | 미래 선도의 **교육도시**
- | 안전한 삶의 **그린도시**